

## Merck, 서울대 의대에 장학금 지원

독일 Merck의 한국법인은 12월1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Merck는 MOU를 통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에 장학금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지속적인 의학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유르겐 쇠닉 사장은 “R&D분야의 장학금 지원이 한국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erck는 2004년에 한국법인을 설립했으며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 기술 분야의 우수논문을 시상하는 <머크 어워드>를 제정하고,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했다.

2008년 초에는 국내에 첨단기술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ATC)를 마련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7월 초 포승에서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액정 연구기술과 생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rck는 액정 및 의약, PLS (생명과학 및 시약, 그리고, 기능성 안료 및 화장품 원료) 등의 화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바닥재나 포장재에서 핸드폰, 자동차 코팅재, 화장품 안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다.

의약분야에서는 1999년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위한 전문의약 사업부를 국내에 마련하고, 2006년 4월 대장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단일 표적 항암

제인 <앨비투스>를 발매했다.

2007년 1월에는 Merck 그룹이 스위스 생명과학기업인 Serono를 인수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기존 전문의약 사업부가통합돼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및 염증, 불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2/19>